■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7-95.
http://doi.org/10.17948/kcs.2020..87.67

‘자두[紫桃]’의 어휘사
—표준어를 중심으로—

여채려(余彩麗)*

목 차

1. 머리말
2. ‘紫桃’의 의미
3. ‘紫桃’라고 명명된 이유
4. ‘紫桃’가 상위어로 된 원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자두가 한자어 ‘紫桃’로부터 지금의 ‘자두’에 이르기까지의 의미 변화를 검토하고 ‘紫桃’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표준어에서 ‘자두[紫桃]’로 자두 종류를 통칭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자두’는 한자어 ‘紫桃’의 축자적인 뜻인 ‘자주색 복숭아’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가 늦어도 15세기부터 자두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紫桃’는 처음에는 자두류의 통칭이 아니라 오직 자두의 하위 품종인 紫李의 속칭이었다. 이러한 ‘紫桃’는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를 접목하여 개량한, 복숭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된 품종이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紫桃’로 속칭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준어에서 ‘자두[紫桃]’가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상위어로 된 계기는 19세기 말에 한국 자두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는 서양 자두의 수입, 개량종인 자두의 재배량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자두, 자도, 紫桃, 복숭아, 李, 오얏, 어휘사.

1. 머리말

우리는 한자 '李'의 훈으로 '성씨', '오얏', '자두' 등을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李'의 의미로 '자두'가 우리에겐 더 친숙하다.[1] '자두'는 기존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앵도〉앵두, 호도〉호두'와 같은 변화를 거친 것처럼 한자어 '紫桃'에서 기원한 것이다. 하지만 '자두'는 '紫桃'의 한자 뜻으로 그대로 해석되지 않았다. '오얏'은 한자 '李'의 훈으로서 문헌상 15세기 중세국어부터 자두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2] 현대한국어에 들어와서 '오얏'은 '고야, 꽤, 오야지, 옹애, 왜기' 등 여러 형태의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고, 표준어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두'를 표준어로 여기고 '오얏'을 "자두의 옛말"로 처리하고 있다.[3] 자두에 관한 단어인 '자두'와 '오얏'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인용된 '紫桃', '자두', '오얏' 등은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따옴표가 없는 紫桃, 자두 등은 그 지시물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2) 15세기부터 '오얏'은 'o+ya'의 음 연쇄에서 'y'가 선행음절이나 후행음절에 붙으면서 달라진 표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간략히 시기적으로 정리해 보면 '오얏, 외얏, 외엿, 외앗' 등이 있다. 먼저 『두시언해』(1481), 『남명집언해』(1482), 『금강경삼가해』(1482)에서는 '오얏/오얒', '외얏/외얒'이 함께 나타나고 『구급간이방』(1489)에서는 '오얏'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朝鮮館譯語』(중간본)(15세기말)에서는 '李 外亞吉(*외야기)'로 나타난다. 16세기 초반에 『번역박통사』 상(1517), 4b면 5행. "虎刺賓 유황외엿"; 『번역노걸대』 하(1517), 38b면 5행. "李子 외엿"; 『훈몽자회』 상(1527), 11a면. "李 외엿 니" 등과 같이 최세진이 집필했던 문헌에만 '앗/얏'의 음성모음화한 결과인 '외엿'이 보인다. 임진왜란 후 특히 17세기에 들어온 후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오얏'의 표기에 혼란이 있었다. '외앗'이라는 표기가 『시경언해』(1613)에 처음으로 나타나 '오얏, 외얏'과 함께 공존하여 쓰이다가 결국 19세기 말까지 '오얏'과 '외얏'만 남았다. 『한불ᄌᆞ뎐』(1880)에 '李'의 한글표기로 '오얏'과 '외얏'이 같이 실렸다. 『한영ᄌᆞ뎐』(1897)과 20세기초의 자료인 『아학편』(1909)에는 '오얏'만 남아 오늘날 한자 '李'의 훈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3) 1988년에 표준어 규정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0항에서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오얏 → 자두'를 예로 든 바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한문 예시들의 현대역은 이 규정과 사전 처리를 따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한문 예시에서 한자 '李'를 '오얏'으로 번역하지 않고 '자두'로 번역하였다.

(A) 가. 자두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조금 크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며 달콤하다. ≒자리(紫李).
나. 자두나무의 열매. 복숭아보다 조금 작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고 달콤하다. 유의어 : 가경자(嘉慶子), 자리(紫李)
다. 오얏 : 오얏나무의 열매. 복숭아와 비슷한데 조금 작고 신맛이 있음. (봉늬. 왜지. 외얏. 자두. 자도=紫桃. 자리=紫李.)(옛말: 오얏. 외엿)

(A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A나)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기술한 ‘자두’의 뜻풀이이다.[4] 두 사전에서 자두의 크기, 껍질 외양, 그리고 맛 등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두’의 유의어인 ‘자리(紫李)’를 함께 제시하였다.[5] (A다)는 『조선말큰사전』(1957)에서 기술한 ‘오얏’의 뜻풀이인데, 이것은 ‘오얏’의 동의어로 ( ) 안에 제시된 ‘자두’, ‘자도(紫桃)’ 또는 ‘자리(紫李)’의 뜻풀이이기도 한다.[6] (A다)의 기술은 외양이 복숭아와 비슷하고 맛이 시다는 점에서 (A가, 나)의 기술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자도(紫桃)’는 오히려 복숭아와 관련이 있는 단어처럼 보이고, ‘자리(紫李)’는 자두의 명칭이 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실제로 ‘자리(紫李)’의 사용 빈도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매우 낮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李’를 ‘紫桃’로 불렀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A다)에 의하면 외양이 복숭아와 비슷하므로 자두를 ‘桃’로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항범[7]에서도 “‘자두’는 ‘복숭아’와 외양이 유사하다. 다만 크기가 좀 작고 껍질 표면이 매끈하며 자주색을 띠고 있는 차이가 있다. ‘紫桃(자주색 복숭아)’라는 이름은 ‘자두’의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만

4) 전자는 살구의 크기와 비교하여 기술하는 반면에 후자는 복숭아의 크기와 비교하여 기술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두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자두의 크기는 살구와 복숭아의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다.

5) ‘자두’의 유의어로 제시된 ‘자리(紫李)’의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두’의 뜻풀이와 동일하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두나무에서 나는 열매. 복숭아와 비슷하나, 조금 작으며 신맛이 있다.”로 되어 있다.

6) ‘자도(紫桃)’, ‘자리(紫李)’는 『조선말큰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뜻풀이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오얏’과의 동의관계를 표현하는 ‘=오얏’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뜻풀이는 ‘오얏’의 뜻풀이와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7) 조항범, 『국어 어원론』(개정판), 충북대 출판부, 2014, 406면.

들어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복숭아와 비슷하다'라는 기술은 자두의 어떤 특정한 하위 품종에 편중되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자두의 생김새는 살구와도 비슷하며, 빛깔이 노란색인 경우도 있다.

(B) 자두나무
열매는 둥글고 밑부분이 들어가며 7월에 노랑빛 또는 자주색으로 익고 과육은 연한 노랑빛이다. 핵은 거꾸로 세운 달걀모양이며 양끝이 약간 좁고 결이 거칠다.[8]

(B)는 식물학적으로 자두의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에 의하면 자두의 모양이 복숭아와 유사하다는 것은 인위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주색'은 오직 자두의 껍질 빛깔을 말함을 알 수 있다.

결국, '李'를 어찌하여 '紫桃'로 불렀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존 논의 또는 사전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한자어 '紫桃'는 처음부터 자두의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자두의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까닭에 아직까지 별로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본고는 '紫桃'와 관련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紫桃'의 의미

자두의 한글표기는 '자도'나 'ᄌᆞ도'로 나타나 『한불ᄌᆞ뎐』(1880), 『국한회어』(1895), 『한영ᄌᆞ뎐』(1897) 등 개화기 문헌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전반에 '자도'나 'ᄌᆞ도'가 'ㅗ〉ㅜ' 고모음화 되어 '자두'로 실현되었다.

(C) 가. 자도 紫桃 pêcho rouge, espèce de prune (오얏의 일종)[9]
나. ᄌᆞ도 紫桃 (붉을)(복숭아) the plum prunus communis[10]
다. 자도 紫桃[11]

8) 「자두나무」, (사)무지개세상 환경부 자연생태 라이브러리, https://web.archive.org/web/20171114093422/http://www.ecolib.or.kr/ecology/index.asp?sel=2&idx=812&st=1(2020.05.10 검색).
9) 『한불ᄌᆞ뎐』, Yokohama: Echo du Japon, 1880.
10) 『한영ᄌᆞ뎐』, Yokohama: kelly&walsh LTD, 1897.

(D) 가. 자도(紫桃)
나. 자두, 자두나무[12]

『한불ᄌᆞ뎐』과 『한영ᄌᆞ뎐』에서는 '자도' 또는 'ᄌᆞ도'를 '오얏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한자어 '紫桃'를 한자 그대로 '붉은 복숭아'로 해석하고 있다. '자도(紫桃)'와 '자두'가 『조선말큰사전』에 함께 실려 있는데, '자도(紫桃)'는 표준어형으로, 고모음화가 된 '자두'는 방언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C)와 (D)를 통해 한자어 '紫桃'로부터 지금의 '자두'에 이르기까지 '紫桃 〉 ᄌᆞ도/자도 〉 자두'라는 표기의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화기 전의 기존 자료에서 거의 한자 표기인 '紫桃'만 쓰고 있었다 하겠다. 이전 자료에 나타난 '紫桃'만 검토하면 '자두'의 어휘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통시적으로 한자어 '紫桃' 및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紫桃'는 고려후기 문신인 陳澕가 쓴 한시 「海棠」에 처음으로 보인다.

(E) 酒痕微微點玉腮, 暗香搖蕩隔林人. 紅杏紫桃無遠韻, 一枝都占上園春.[13]
(술기운이 살짝 옥볼에 오르며 / 그윽한 향기 수풀 너머 사람을 뒤흔드나니. / 붉은 살구꽃이나 자줏빛 복숭아꽃은 먼 운치가 없는데, / 한 가지가 상원의 봄을 완전히 차지하네.)

자두 꽃이 보통 흰색이고, 복숭아꽃은 흰색도 있지만 보통 연분홍색이고 진한 홍색, 자주색과 비슷한 색깔도 있다. 그러므로 한시의 의미적 구조와 문맥을 고려하면 '紅杏'은 '紅杏花'의 준말이며, 한문 그대로 '붉은 살구꽃'을 말하는 것이고, '紫桃'는 '紫桃花'의 준말이며, '자두 꽃'보다 한문 그대로 '자주색 복숭아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이 의미와 관련된 초기 자료가 부족하므로 한국어에서 '紫桃'가 처음부터 자두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한문의 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주색 복숭아'를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1) 『국한회어』(1895)
12) 『조선말큰사전』, 한글학회, 1957.
13) 陳澕, 「海棠」, 『梅湖遺稿』.

'紫桃'가 복숭아를 지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紫桃'가 꽃이 아닌 과실을 의미하는 용례가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단어가 어떤 과실을 지시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F) 又見民間有一弊焉, 如櫻桃・紫桃・黃桃・林檎等物, 乃其弊也.[14]
(보건대 한 가지 폐가 있으니, [백성들이 바치는] 앵두・자도・황도・능금과 같은 것이 곧 그것이다.)

(G) 長安紫桃高枝聳, 摘下氷盤淸露重. (…) 馬卿多病久沉綿, 一片入口煩痾痊.[15]
(장안에서 자라는 자도가 높은 가지에서 풍성하게 열려 있어, / 이를 따서 큰 그릇에 담으니 깨끗한 이슬이 많네. / (…) 馬卿이 병약하여 병석에 오래 누워 있었는데, / [그가 자도] 한 조각을 먹으니 더위에 찌든 병이 바로 나았네.)

(F)의 기사에 나온 '紫桃'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예이다. 맨 앞의 과실인 '櫻桃[앵두]'와 끝의 과실인 '林檎[능금]'을 제외하면, 중간의 '紫桃'와 '黃桃'는 이 기록만으로는 지금의 자두와 황도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G)에서 '紫桃'라는 과실이 '煩痾'라는 병에 도움이 됨을 말해 주는데, 紫桃의 이러한 효과를 통해 어떤 과실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煩痾'는 더위에 찌든 병이다. 『本草綱目』과 『東醫寶鑑』에서는 더위에 지친 여름철에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진 자두가 피로회복, 체질 개선, 골절이 쑤시는 것과 함께 오랜 열 또는 열독을 낫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6] 이에 의하면 (G)의 '紫桃'는 자두를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기상으로 볼 때 (F)의 '紫桃'도 자두를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정확한 결론을 짓기 위해 우리는 한자어 '紫桃'와 공유하는 유사한 의미 범주

14) 『중종실록』 33권 中宗 13년(1518) 5월 18일 2번째 기사.
15) 許筠, 「荷谷先生詩鈔・紫桃吟」, 『荷谷集』. "長安紫桃高枝聳, 摘下氷盤淸露重. 仙母初分漢殿香, 漁郎又得秦人種. 馬卿多病久沉綿, 一片入口煩痾痊. 不數張公大谷梨, 寧同韓子華山蓮. 蓬萊淸淺三千歲, 浮丘仙人遙執袂. 百尺黃塵那可留, 明朝持獻蒼梧帝."
16) 『本草綱目』 卷二十九 李. "暴食, 去痼熱, 調中, 去骨節間勞熱."; 『東醫寶鑑』 湯液篇, 24a면 10행. "李. 味甘美者可啖, 味苦者入藥, 除骨節間勞熱及痼熱, 益氣, 但不可多食.【本草】"

를 가지는 다른 과실 어휘들, 즉 이른바 분류어휘집과 같은 자료를 통해 '紫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머리말과 각주 2)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자 '李'의 훈은 '오얏'이다. 그리하여 분류어휘집에서 자두를 지시하는 단어로는 거의 '오얏'만이 나타난다. 다행히도 '紫桃'를 포함한, 분류어휘집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문헌이 확인된다.

(H) 櫻桃 (…)
唐杏 (…)
紫桃, 多產于三陟蔚珍, 大如拳而多津.
(자도는 삼척과 울진에서 많이 나는데, 주먹만큼이나 크고 과즙이 많다.)
黃桃, 多產于春川洪川.
(황도는 춘천과 홍천에서 많이 난다.)
綠李, 京中多有, 而產於西郊者最佳. 紫黃桃俱小, 不及於外產.
(푸른 자두는 서울에서 많이 나는데, 서교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도·황도는 모두 작고, 외지에서 나는 것보다 못하다.)
盤桃 (…)
僧桃 (…)
蒲桃 (…)[17]

(H)에서 '紫桃'와 '黃桃'의 배열순서가 (F)와 동일하므로 주목된다. (H)의 '紫桃'의 정체를 밝히면 (F)의 '紫桃'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하다. 『성소부부고』「과실지류」는 허균이 스스로 편집한 문집이지만, 이 분류에 수록된 과실 어휘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류어휘집의 성격을 보인다. 곧 「과실지류」에 열거된 과실의 순서를 보면 의미적으로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과실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18] 이러한 점에서

17) 許筠, 『惺所覆瓿藁』(1613) 권26 屠門大嚼 果實之類.
18) 『惺所覆瓿藁』(1613) 권26 屠門大嚼 果實之類에 수록된 과실 어휘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天賜梨, 金色梨, 玄梨, 紅梨, 大熟梨, 金橘, 甘橘, 靑橘, 柚柑, 柑子, 柚子, 甘榴, 早紅柹, 角柹, 烏柹, 栗, 次密陽大栗, 竹實, 大棗, 櫻桃, 唐杏, 紫桃, 黃桃, 綠李, 盤桃, 僧桃, 蒲桃, 西瓜, 甜瓜, 木瓜, 達覆盆." 등과 같다. 이들을 먼저 크게 '나무에서 나온 열매(天賜梨-蒲桃)'와 '땅에서 나온 열매(西瓜, 甜瓜, 木瓜, 達覆盆)'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 순서대로 종류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배류(天賜梨, 金色梨, 玄梨, 紅梨, 大熟梨)', '감귤류(金橘, 甘橘, 靑橘, 柚柑, 柑子, 柚子)', '甘榴', '감류(早紅柹,

'櫻桃, 唐杏 紫桃 黃桃 綠李 盤桃 僧桃'와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과실들을 종류별로 구분할 때, '紫桃 黃桃'와 뒤에 있는 복숭아류에 속하는 '盤桃, 僧桃' 사이에 끼어든 자두류에 속하는 '綠李'[19]를 고려하면 '紫桃'와 '黃桃'는 복숭아가 아닌 다른 과일을 의미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紫桃'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복숭아가 아님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H)의 '紫桃'는 '紫桃, 黃桃'처럼 한 묶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紫桃 黃桃 綠李'처럼 자두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唐杏 紫桃 黃桃'의 묶음으로 살구류에 속하는 과실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허봉과 허균이 형제라는 점에서 (H)의 '紫桃'와 (G)의 '紫桃'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대상은 둘 다 자두이다. 그렇다면 (F)의 '紫桃'도 마찬가지로 자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綠李'에 대한 설명에서 '紫黃桃'를 부기(附記)하였다. 언뜻 보면, '紫黃桃'는 다른 하나의 자두 품종의 명칭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외지에서 나는 것보다 못하는 '紫黃桃'는 서울에서 생산하는 紫桃와 黃桃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기를 기술하는 방식에 따르면 '紫黃桃', 즉 '紫桃'와 '黃桃'는 자두의 두 가지 하위 품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紫黃桃'는 『성소부부고』에만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扶桑錄』, 『東槎錄』에는 '黃紫桃'라는 명칭도 보인다.

(I) 가. 桃・杏・大棗・黃紫桃・林檎等物, 無不產出, 而只胡桃, 海松子不產.[20]

角柿, 烏柿)', '밤류(栗, 次密陽大栗)', '竹實', '大棗', (…) '오이류(西瓜, 甜瓜, 木瓜)', '達覆盆' 등이 그 분류이다. 각 종류에 속하는 과실 어휘들은 계열관계이며 같은 층위에 있는 것이다.

19) 한자 '李'의 훈은 '오얏'이므로 '綠李', 그리고 뒤에서 제시한 '靑李'도 '오얏'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가요 처용가에 '머자 외야자 綠李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또는 조선 초기까지 '외얒(오얏)'과 '綠李'는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용가의 이 문장 해석에 대해서 김완진에서는 선행한 '외야자'와 맨 앞의 '머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綠李'는 '푸른 오얏'이 아니고 제3의 다른 과일일 수도 있다고 하고, 이 단어를 한자어 '鹿梨'의 전와로 상정해 봤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논의를 고려하여 각주 18)에서 제시한 과실 어휘들의 의미적인 분류에 의해서 『성소부부고』에 나온 '綠李'를 자두류에 분류시키고 '푸른 자두'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김완진, 「고려가요 식물명의 두세 문제」,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 출판부, 2000, 325면.

20) 李景稷, 『扶桑錄』(1617).

(복숭아・살구・대추・황자도・능금 등 생산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호두와 잣은 산출되지 않는다.)

나. 如桃杏黃紫桃林檎之屬, 節序相違, 不得見之.[21]

(복숭아・살구・황자도・능금 등과 같은 종류는 절서가 서로 어긋나서 보지 못한다.)

『부상록』과 『동사록』에 기록된 내용은 일본에 대한 견문록이지만 이 책들에 수록된 사물 명칭은 당시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맥상 맨 앞의 복숭아인 '桃'와 중간의 살구인 '杏', 대추인 '大棗', 그리고 끝의 능금인 '林檎'의 균형을 고려하면 '黃紫桃'는 '黃桃'와 '紫桃'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아니라 이외의 다른 과일 명칭으로 추정된다.[22] 18세기의

---

21) 姜弘重, 『東槎錄』(1624-1625).

22) '紫黃' 또는 '黃紫'는 색채어로서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확인된다.

① 가. 扶安都正・永原守言: "玉體長則中人之最長, 不肥不瘦而長. 鬚髯則雖不至甚多, 亦不爲少, 長可寸半餘, 色則暫爲紫黃. 鼻梁稍爲隆高."(부안 도정과 영원수가 말하기를, "옥체의 키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큰 키로서, 비만하지도 않고 수척하지도 않아 훤칠하고, 수염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또한 적은 편도 아닌데, 길이는 한 치 반이 넘고 빛깔은 약간 자황색이며, 콧등은 좀 높은 편이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1593) 6월 28일 6번째 기사.

나. 有二處虹氣相背, 長短不齊, 其內紫黃色, 外靑黑色, 申時末乃止.(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서로 등지고 있으며 장단이 같지 않다. 그의 안쪽은 자황 빛깔이고 바깥쪽은 청흑 빛깔이다가 신시말에 사라졌다.) 『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1542) 1월 26일 2번째 기사.

② 가. 西陵君母言: "玉體稍長於中人. 鼻梁隆高. 龍眼長, 而微有痘疹痕. 鬚髯不多, 而其色黃紫, 長可卷上, 而銜於口."(서릉군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옥체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고, 콧등은 높으며, 용안은 갸름한데 약간 얽은 흔적이 있고, 수염은 많지 않되 황자색으로 길이는 말아 올리면 입을 덮을 정도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1593) 6월 28일 5번째 기사.

나. 蓋本國人貨買多禁物. 如黃紫色段, 史記等冊, 皆中朝不許出境者.(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이 사 가지고 오는 것은 대부분이 금하는 물품이다. 예컨대, 황자색 비단이나 사기 등의 책과 같은 것은 다 중국에서 국경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許篈, 『荷谷集』 荷谷先生朝天記 上 萬曆二年.

①은 '紫黃(色)'에 대한 예이고 ②는 '黃紫(色)'에 대한 예이다. ①가와 ②가에서 사람 피부 색깔을 기술하였을 때, 전자는 '紫黃'으로, 후자는 '黃紫'로 다르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록한 사건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紫黃'이든 '黃紫'든 용법이나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여채려에 따르면, '紫黃'과 '黃紫' 두 색채어의 명칭은 인위적으로 색상 '紫'와 색상 '黃'을 절충해서 만든, 동일한 빛깔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H)의 '紫黃桃'와 (I)의 '黃紫桃'는 노란색과 자주색을 함께 띤 자두의 절충적인 명칭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黃紫桃'는 [[黃紫]桃]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紫黃桃'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紫黃]桃]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紫桃'와 '黃桃'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봐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H)의 '紫黃桃'와 (I)의 '黃紫桃'를 동일한 대상을

『增補山林經濟』에 보이는 '黃紫桃'는 하나의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J) 黃紫桃, 甘味最好, 種核分叢皆可, 多種隙地.[23]
(황자도는 맛이 달콤하고 가장 좋으며, 씨를 심거나 줄기를 갈라 심는 것이 모두 좋으니 비어 있는 곳에 많이 심어라.)

『증보산림경제』에 열거된 과실들은 '(…) 杏, 林檎, 桃, 李, 楂果, 黃紫桃, 柰, 木瓜, 櫻桃, 葡萄, 榠, 柚, 橘, 柑, 獼猴桃, 山葡萄 (…)'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각 표제어항 뒤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이 책은 유사한 의미 범주를 가지는 어휘들을 묶어 기술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책에서 기록하는 과실의 순서가 다소 수의적이다. 이 때문에 단독 표제항으로 제시된 '黃紫桃'가 한 종류의 과실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을 지칭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래 (K)와 같은 고려 후기의 문인 작품에서 자주색과 노란색 두 빛깔이 섞인 자두 품종을 언급한 바 있었다.

(K) 曾聞李是果中珍, 黃紫相交品氣新.[24] 一嚼洒然蘇病骨, 感君偏惠老衰人.[25]
(이전에 듣기로 자두는 과일 중의 보배이다. / 노란색과 자주색이 얽혀 있는 품종은 정기(精氣)가 새로우니, / 한 번 맛보면 쑤시는 골절이 시원하게 나아졌다. / 늙고 약한 나에게 줘서 고맙네.)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고 보면 이후의 문헌에 왜 '紫黃桃'가 보이지 않고 오직 '黃紫桃'만 나타났다는 문제도 설명해야 한다. 여채려, 「3음절 한자어 색채어의 배열순서와 단어 구조」, 『한국어학』 제72호, 한국어학회, 2016, 121-145면.

23) 『增補山林經濟』(1766) 권3 種樹.

24) '黃紫相交品氣新'를 직역하면 '황색과 자주색을 서로 교배하여 품기가 새로워지니'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고려 고종 때 이규보(李奎報)의 「李相國・朴學士・同訪, 是七月二十五日也. 時家園鳳翔花盛開, 唱韻使英上人走筆賦之, 予亦卽席走筆和示.」, 『東國李相國後集』(1241-1251) 卷第七 古律詩. "丹白相交兩絶奇, 莫敎風雨卷離披.(희고 붉게 얽힌 빛이 매우 기이하네. / 무정한 비바람아 이를 뒤흔들지 말라.)"에서 '相交'를 '두 가지 빛깔이 얽히다'로 해석할 수 있듯이, (K)의 '相交'를 '서로 교배하다'보다 '[두 가지 빛깔이] 서로 얽히다'로 해석하면 문맥상 더 적절해 보인다.

25) 元天錫, 「謝金先生惠李」, 『耘谷行錄』.

(K)에서는 이러한 노란색과 자주색이 섞인 자두 품종의 존재는 보여 주지만 그것의 명칭을 말해 주지는 않았다. ‘黃紫桃’를 [[黃紫]桃]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색깔상 ‘黃紫桃’가 (K)에서 말해 주는 자두의 빛깔과 일치하므로 주목된다. (I)와 (J)에 나온 ‘黃紫桃’는 어느 정도 (K)에서 말하는 자두 품종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의 설명 부분에서 언급한 『증보산림경제』에 나온 과실 어휘들의 열거 순서를 보면,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林檎’과 ‘柰’의 능금류와, ‘葡萄’와 ‘山葡萄’의 포도류에 속하는 이들 사이에 다른 과실이 끼어들어 있다. 이점을 고려하면, ‘李’와 ‘黃紫桃’가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黃紫桃’는 자두류에 속하지 않고 자두인 ‘李’와 의미적 공통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때 ‘李’와 ‘黃紫桃’는 서로 다른 자두 품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듯하다.

‘紫桃’와 ‘黃紫桃’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예시 (I) 이후의 17세기 문헌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문헌에 ‘紫桃’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 두 단어가 ‘자두’에 다양한 방언형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상이한 명칭으로 취급한 것은 아닐까 한다.

‘紫桃’가 확실하게 자두를 의미하는 문증은 18세기 말의 자료들에서 나타난다.[26] 이 자료들은 ‘紫桃’라고 하는 품종과 ‘오얏[李]’이라고 하는 품종의 관계도 명확히 말해 준다. 먼저 조선 후기의 농업기술서인 『海東農書』에 나온 기록을 보자.

---

26) 본고에서 제시한 예들 이외에 『日省錄』 중 正祖 때 「進饌于慈宮」의 기록에도 ‘紫桃’가 보인다.

가. 李實一器, 高九寸. 六月桃一器, 高九寸. 紫桃一器, 高九寸.(자두는 한 그릇이고 높이가 9치이다. 유월도는 한 그릇이고 높이가 9치이다. 자도는 한 그릇이고 높이가 9치이다.) 『일성록』 정조 19년(1795) 6월 18일.

나. 生梨一器, 經六寸五分, 高一尺. 蟠桃一器, 經六寸五分, 高一尺. 紫桃黃桃一器, 經五寸八分, 高一尺.(배는 한 그릇이고, 지름이 6치 5푼이고 높이가 1자이다. 반도는 한 그릇이고, 지름이 6치 5푼이고 높이가 1자이다. 자도와 황도는 한 그릇이고, 지름이 5치 8푼이고 높이가 1자이다.) 『일성록』 정조 22년(1798) 6월 20일.

다. 楂果一器, 圓徑五寸, 高一尺. 蟠桃一器, 圓徑四寸, 高一尺. 紫桃柳黃共一器 圓徑四寸五分, 高一尺.(사과는 한 그릇이고, 원지름이 5치이고 높이가 1자이다. 반도는 한 그릇이고, 원지름이 4치이고 높이가 1자이다. 자도와 유황은 합하여 한 그릇이고, 원지름이 4치 5푼이고 높이가 1자이다.) 『일성록』 정조 23년(1799) 6월 20일.

(L) 李【외얏】. 李有黃李紫李. 紫李俗呼紫桃. 一種味濇而不堪食者, 卽野李也.[27]
('李'는 한글로 '외얏'이라고 한다. 자두에는 노란색 자두[黃李], 자주색 자두[紫李]가 있다. '紫李'는 세속에서 '紫桃'라고 부른다. 맛이 시고 먹기 힘든 한 가지 종류는 바로 야생 자두[野李]이다.)

(L)은 한반도에서 자라는 자두 종류를 말해 주는데, 주로 노란색 자두와 자주색 자두, 그리고 야생 자두 등이 있다.[28] 이 책은 '紫桃'라는 명칭이 자주색 자두를 지칭하는 '紫李'의 속칭임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L)의 기술에 의하면 '오얏[외얏]'은 자두 품종의 통칭으로 쓰이는 것이고 '紫桃'는 자두의 한 하위 품종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즉 '紫桃'는 '오얏[외얏]'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앞의 『한불ᄌᆞ뎐』과 『한영ᄌᆞ뎐』에서 '자도' 또는 'ᄌᆞ도'를 '오얏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시기에 '오얏'이 여전히 자두의 통칭이고 '자도(紫桃)'는 하위 품종의 명칭으로 보인다. 즉, '오얏'과 '紫桃'는 상하위 계층의 상이한 명칭이며, 당시에 '오얏'으로 지칭하는 대상과 '紫桃'로 지칭하는 대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紫桃'가 지칭하는 자두 품종의 특징에 대해서는 19세기에 柳僖의 『物名攷』와 失名氏의 『廣才物譜』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M) 가. 李【외얏, 樹能耐久, 其類甚多.】 嘉慶子 居陵迦 麥李【早熟者, 올외얏, 一名御李.】 晩李【冬月熟者.】 季春李【冬花春棠者.】 御黃李【出北方, 形大而肉厚核小而甘香.】 均亭李【出建寧, 紫而肥大味甘如蜜.】 擘李【熟則自裂.】 餻李【肥粘如餻.】 休李【无棠李也, 一名趙李.】 虎刺賓【굴근 외얏】 紫李【大而色紫者味更勝.】 (…)[29]
('李'는 한글로 '외얏'이라고 한다. 자두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그 종류가 매우 많다. '嘉慶子', '居陵迦'라고도 한다. 麥李는 일찍 익은 것이라 '올외얏'이라고 하는데, '御李'라고도 한다. 晩李는 겨울에 익은 것이다. 季春李는 겨울에 꽃이 피고 봄에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御黃李는 북방

27) 徐浩修, 『海東農書』(1798-1799) 권3, 25a면.
28) 19세기에 徐有榘가 편찬한 『林園十六志』(1842-1845)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林園十六志』 晩學志 卷第二 菓類. "按我東之產, 只有黃李紫李數種, 紫李俗呼紫桃, 又有一種味濇而不堪食者, 野李也."
29) 『廣才物譜』(19세기초) 권4 果部 五果類.

에서 나는 건데, 크기가 크고 과육이 두껍고 씨가 작고 먹기가 달콤하고 맛있다. 均亭李는 建寧에서 나는 건데, 자주색이고 크고 두껍고 맛이 꿀처럼 달다. 擘李는 익으면 톡 터진다. 餹李는 크고 두껍고 떡처럼 차진다. 休李는 씨가 없는 자두인데, ‘趙李’라고도 한다. 虎刺賓은 ‘굴근 외얏’이라고 한다. 紫李는 크고 빛깔이 자주색이고 맛이 더 뛰어난다. (…))

나. 李 외앗 嘉慶子仝 居陵迦 梵語 虎刺賓 李之大者 굴탈이 麥李 小而早熟 올외앗 駮 赤李 疑今紫桃 紫桃 大而色紫 味亦甘美 休 李無實 趙李仝[30] (‘李’는 한글로 ‘외앗’이라고 한다. 嘉慶子는 이와 같다. ‘居陵迦’는 산스크리트어이다. 虎刺賓은 자두 중에서 큰 것이며 한글로 ‘굴탈이’라고 한다. 麥李는 작고 일찍 익으므로 ‘올외앗’이라고 한다. 駮은 빨간 자두인데, 지금의 紫桃인 것 같다. 紫桃는 크기가 크고 색깔이 자주색이며 맛이 달콤하다. 休는 씨가 없는 자두이며 趙李는 이와 같다.)

(M가)의 『광재물보』에서는 ‘紫李’로, (M나)의 『물명고』에서는 ‘紫桃’로 썼다.[31] (M가)와 (M나)에서 사용한 명칭은 다르지만 기록된 자두의 특징은 동일하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 특징은 크기가 크고 빛깔이 자주색이며 맛이 달콤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L)에서 언급되었던 ‘紫李俗呼紫桃’까지 고려하면 ‘紫李’와 ‘紫桃’는 동일한 대상, 곧 자주색 자두를 지칭하는 상이한 명칭임을 알 수 있다.[32]

(L)과 (M)에서 기록한 ‘紫桃’의 위상(位相) 및 특징과 달리 조재삼(趙在三)이 편찬한 유서인 『松南雜識』 「草木類」에서는 ‘紫桃’를 자두의 하위 품종 명칭이 아닌 자두의 통칭으로 보고 있고 그 특징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

30) 柳僖, 『物名攷』(1820) 권4 無情類 木.

31) 자두의 여러 하위 품종을 소개하는 (M)은 중국 쪽 문헌에(예시 (O)를 참고할 것) 기록된 자두의 품종을 참고하면서 본국 자두 품종을 고려해서 해당 한어의 한글 표기를 제시하여 편찬한 유서(類書)들이다. 그 중의 『廣才物譜』는 19세기초에 『才物譜』(1798)를 계승하여 확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32) (M가)의 ‘御黃李’와 ‘均亭李’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두 품종을 말한다. 이 두 자두 품종에 대해서는 14세기초에 王禎의 『農書』 卷九 百穀譜六 果屬 李에서 “北方一種, 謂之御黃, 其重踰兩, 肉厚核小, 食之甘香而美, 李中之嘉種也. 江南建寧有一種, 名均亭李, 紫色, 極肥大, 味甘如蜜, 南方之李, 此實爲最.”라고 기록한 바 있다. ‘均亭李’는 중국의 자두 품종이기 때문에 그의 특징이 ‘紫桃/紫李’와 같지만 여기서 ‘紫桃’와 ‘紫李’의 관계만 설명하기 때문에 ‘均亭李’와 비교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N) 紫桃, 俗謂李為紫桃. (…) 崔奉國家李肉厚無核. 識者曰: "天罰乖龍, 割其耳, 血墜地生此李." 與侯道華所食永樂無核棗, 正相似也. (…)[33]
(세속에서는 자두를 '紫桃'라고 한다. (…) 최봉국네 집에 있는 자두는 과육이 두텁고 씨가 없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느님이 흉악한 용에게 벌주기 위해 그의 귀를 베었는데, 피가 땅에 떨어져 이 자두가 생겼다. [이 자두가] 侯道華가 먹던 씨가 없는 영락 대추와 막 비슷하다. (…))

(N)에서 말하는 '紫桃'는 피와 같은 붉은색이며 과육이 두껍고 씨가 없는 자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빛깔 특징에 있어서 (N)은 (M)에서 기술한 것과 다르지만, 언해 서적에 한자 '紫'가 '붉다'로 언해된 경우도 많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34] (M)의 '紫桃' 또는 '紫李'의 '色紫'를 '붉은색'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송남잡지』에서 자두의 표제어를 '紫桃'로 사용한 것이다. 즉, (N)의 '紫桃'는 자두의 하위 품종인 '紫李'의 속칭이 아니라 자두 품종 모두를 포함하는 통칭인 '李'의 속칭으로서 상위어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광재물보』, 『물명고』와 『송남잡지』는 큰 시간 간격을 두고 간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기의 '紫桃'는 자두의 하위 품종을 뜻하기도 하고 자두의 통칭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한자어 '紫桃'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 단어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두'는 고려 시기에 한자어 '紫桃'의 축자적인 뜻인 '자주색 복숭아'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紫桃'는 늦어도 15세기에 자두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紫桃'는 자두의 의미로 쓰일 때, 처음에는 오직 자두의 한 하위 품종인 '紫李'의 속칭이었다가 19세기 중반부터는 자두의 통칭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33) 趙在三, 『松南雜識』(1855) 草木類.
3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두시언해』(1481) 권3, 52a면 5행. "粉堞電轉紫游韁 흰 城에 블근 ᄆᆞᆯ굴에 번게 옮ᄃᆞᆺᄒᆞ니"

3. '紫桃'라고 명명된 이유

그런데, 이 하위 품종의 자두를 어찌하여 '紫桃'라고 불렀는가? 한자어 '紫桃'는 고려 시기로부터 이미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중국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 즉 이 단어가 그 품종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紫桃'가 자두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 언제부터 한국에 유입되었는지를 검토해보자.

(O) 가. 休, 無實李. 痤, 接慮李. 駁, 赤李.[35]
(休는 씨가 없는 자두이고 痤는 接慮李이고 駁은 붉은 자두이다.)
나. 休, 無實李【一名趙李】. 痤, 接慮李【今之麥李】. 駁, 赤李【子赤】.
[疏] 別李屬也. 李之無實者, 名休. 郭云, 一名趙李. 痤, 接慮李. 郭云, 今之麥李, 與麥同熟, 因名云. 李之子赤者, 名駁.[36]
(자두 중에서 씨가 없는 자두는 '休'라고 칭하는데, 郭璞이 이를 '趙李'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痤는 接慮李이니 郭璞이 말하기를 지금의 麥李이다. 보리와 같은 시기에 익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라고 하였다. 자두 중에서 열매가 붉은 것을 '駁'이라고 한다.)

(P) 가. 桃十: 秦桃, 榹桃, 紲核桃, 金城桃, 綺葉桃, 紫文桃, 霜桃【霜下可食】, 胡桃【出西域】, 櫻桃, 含桃.
나. 李十五: 紫李, 綠李, 朱李, 黃李, 青綺李, 青房李, 同心李, 車下李, 含枝李, 金枝李, 顔淵李【出魯】, 羌李, 燕李, 蠻李, 侯李.[37]

(O)는 중국에서 최초로 기록한 자두의 종류와 해당 종류의 명칭에 대한 예이다. (P가)와 (P나)는 각각 『西京雜記』에서 소개한 복숭아와 자두의 다양한 종류와 관련된 명칭이다.[38] '紫桃'에 가장 가까운 명칭은 (P가)의 '紫文桃'

35) 『爾雅』 釋木.
36) 郭璞(晉), 邢昺(北宋), 『爾雅注疏』 卷九 釋木第十四.
37) 劉歆(漢) 撰, 葛洪(晉) 錄, 『西京雜記』 第一, 5a면.
38) (P가)에서 '胡桃'와 '櫻桃'는 복숭아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櫻桃'는 '含桃'라고도 하므로 '櫻桃'와 '含桃'는 동의어이며, 지시하는 대상이 같다. 따라서 『西京雜記』에서 기록한 '桃十'은 엄밀히 말하자면 복숭아의 열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열 가지 '○桃'로 명명된 과실을 열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와 (P나)의 '紫李'이다. 전자는 '紫桃'와 한 글자의 차이이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복숭아라는 점에서 다르다. 후자는 (L)에서 말해 준 '紫桃'의 공식적 명칭인 '紫李'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紫桃'는 이른 시기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존 자료에서 '紫桃'가 자두를 지시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복숭아를 의미하는 기록은 북송 시기의 「謝潛亭惠芸香紫桃」라는 시의 제목[39]과 남송 시기에 陳耆卿이 편찬한 『嘉定赤城志』(1223)에만 보인다.

> (Q) 桃. 多種, 以天台水南為勝, 皆夏熟. 惟紫桃, 一名崑崙桃, 以秋熟. 更有名寒桃, 以十月熟. (…)[40]
> (복숭아는 종류가 많다. 천태수 남쪽에 있는 것이 뛰어나고 다 여름철에 익는다. 오직 곤륜도라고도 하는 자도만 가을에 익는다. 또한 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월에 익는다. (…))

송나라에 나타난 '紫桃'는 고려 후기에 陳澕의 시에 나타난 '紫桃'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이를 고려하면 정확한 유입 시기는 모르겠으나 한자어 '紫桃'가 늦어도 북송 시기에는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자어는 조선 전기까지 주로 한문으로 된 문헌을 통해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紫桃'의 지시물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중국의 비교적 상세한 기록인 (Q)에서 '紫桃'는 자두가 아닌 복숭아 조항에서 복숭아의 하위어로 나타난다. 이 복숭아는 '崑崙桃'라고도 하였는데, 『本草綱目』(卷二十九) 「桃」조의 "洛中有昆侖桃 肉深紅紫色"에 의하면 과육이 짙은 적자색의 복숭아를 말한다. '紫桃'는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복숭아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41] 그러므로 중국의 紫桃가

---

39) 이 시의 내용은 "暑窗已覺書生熇, 饑腹還驚雨後雷. 珍重先生解人意, 芸香桃實一時來."이다. '桃實'은 복숭아나무의 열매를 뜻하므로 이 시 제목의 '紫桃'는 복숭아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40) 陳耆卿(南宋), 『嘉定赤城志』(1223) 卷三十六.

41) 현재 중국에서 '紫桃'라고 하는 복숭아 품종은 2011년부터 江蘇省 南通市 如皋縣 및 그의 인접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과육이 자주색인 개량종이다. 이 '紫桃'라는 복숭아 품종은 재배 역사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李紅梅・崔松明・平正建, 趙琳 등을 참고할 수 있다. 李紅梅・崔松明・平正建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 출현한 '紫桃'는 2011년에 如皋縣에 있는 平康果蔬農場

한국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과실은 복숭아의 품종일 수밖에 없다.

중국 紫桃의 특징을 볼 때 자주색 자두를 의미하는 '紫李'와는 색깔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에서 보였듯이 조선에 紫李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자두 품종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었다면 (P나)의 중국 紫李와 같은 자두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문헌에서 한자 '李'와 '桃'가 지시하는 대상이 서로 다름은 분명하다.[42] '桃'는 자두의 의미와 전혀 다른 한자이기 때문에, (P)와 같이 중국 문헌에서 '○桃'가 자두를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紫桃'가 복숭아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本草綱目』(卷三十) 「櫻桃」 조에는 "雖非桃類,

이 江蘇省農業科學研究院과 합력하여 개발・연구한 품종이다. 趙琳은 이 개량한 紫桃는 과육이 자주색이며, 크기가 일반적인 복숭아보다 작으나 안토시안 함량이 보통 복숭아에 비해 5배나 많다고 하였다. 李紅梅・崔松明・平正建, 「生態紫桃樹病害防治技術」, 『中國農業信息』 第19期, 中國農業科學院農業資源與農業區劃研究所, 2016, 98面; 趙琳, 「種植富硒紫桃身價高」, 『農家致富』 第10期, 江苏省农村经济杂志社, 2019, 21面.

42) 중국 쪽 문헌에서 기록한 자두나 복숭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李. 其種近百. 其子, 大者, 如杯如卵; 小者, 如彈如櫻. 其味, 有甘, 酸, 苦, 澹, 數種. 其色, 有青, 綠, 紫, 朱, 黄, 赤, 縹綺, 胭脂, 青皮, 紫灰之殊. 其形, 有牛心, 馬肝, 柰李, 杏李, 水李, 離核, 合核, 無核, 匾縫之異. 其產, 有武陵, 房陵諸李. 早則麥李, 御李, 四月熟. 遲則晚李, 冬李, 十月十一月熟.(자두, 그 종류는 백 가지에 가깝다. 그 열매가 큰 것으로는 컵이나 알과 같고 작은 것으로는 탄알이나 앵두와 같다. 그 맛은 단 것, 신 것, 쓴 것, 떫은 것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그 빛깔은 청색, 녹색, 보라색, 자주색, 노란색, 붉은색, 희고 푸르스름한 색, 연지색, 푸른색, 자회색 등의 차이가 있다. 그 생김새는 소의 심장과 같으며 말의 간과 같으며 능금이나 살구 등과 같은 것도 있다. 씨가 분리된 것, 씨가 합한 것, 씨가 없는 것, 씨가 납작한 것의 차이가 있다. 그 생산지로는 武陵李 房陵李 등의 자두가 있다. 일찍이 익은 麥李 御李는 사월에 익으며, 늦은 晚李 冬李는 시월 또는 십일 월에 익는다.) 李時珍(明), 『本草綱目』 卷二十九 李.

나. 其實, 有紅桃, 緋桃, 碧桃, 緗桃, 白桃, 烏桃, 金桃, 銀桃, 胭脂桃, 皆以色名者也. 有綿桃, 油桃, 御桃, 方桃, 匾桃, 偏核桃, 皆以形名者也.(그의 열매는 紅桃 緋桃 碧桃 緗桃 白桃 烏桃 金桃 銀桃 胭脂桃 등이 있는데, 모두 다 빛깔에 따라 명명된 것이다. 綿桃 油桃 御桃 方桃 匾桃 偏核桃 등이 있으니 모두 모양으로 명명된 것이다.) 李時珍(明), 『本草綱目』 卷二十九 桃.

(가, 나)에서 복숭아와 자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명명 방식을 말해 주고 있다. '紫李 綠李 朱李 黄李', '紅桃 白桃 烏桃 金桃' 등의 종류는 빛깔에 따라 명명된 것이고 '牛心李 杏李 無核 匾縫', '綿桃 油桃 方桃 匾桃' 등은 모양과 관련해서 명명된 것이다. 이외에 생산지('房陵李')나 수확하는 시간('麥李 晚李 冬李')에 따라 명명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들로 명명할 때 자두의 명칭은 '○李'이고 복숭아의 명칭은 '○桃'인 것이 일반적이다.

以其形肖桃. 故曰櫻桃, 又何疑焉. 如沐猴梨, 胡桃之類, 皆取其形相似耳."[43]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櫻桃', '胡桃'의 명명 이유를 말해 준다. 곧, 이들은 복숭아류에 속하지 않지만, 오직 복숭아의 모양과 유사하므로 '○桃'로 명명된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명명 방식에 따르면, 紫李라는 자두 품종은 복숭아와 모양이 유사해서 '紫桃'로 속칭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 들어온 어휘인 '紫桃'가 복숭아나 그 부류의 명칭이다가 모양이 복숭아와 유사한 '紫李'라는 자두 품종을 지칭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당시에 紫李의 모양이 복숭아와 유사한 것이 증명되면 가능해진다.

우리는 송나라의 사신 徐兢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권23)의 "亦有青李, (…) 味薄而形小.", 『세종실록』 1431년 6월 8일 3번째 기사인 "自今, 如杏・梨・棗・栗・綠李・林檎等物, 薦進時.", 그리고 (H)에서 살펴본 허균의 『성소부부고』(1613) 권26 「과실지류」에 나온 "綠李, 京中多有.", 李植이 지은 『澤堂集』(1674) 권16 「雜著」에 나온 "林檎 山杏 綠李" 등에 의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려 전기에 한자어 '紫桃'가 지칭하는 자두 품종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자두는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본디 한반도에서 많이 자라는 자두는 綠李 또는 青李이며, 이러한 자두 품종은 푸르고 맛이 박하였던 것인데, 아마도 (L)에서 말하는 '野李'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또한 (M)에서 '오얏'과 '紫桃'의 위상, 그리고 각자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듯이, 지금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두를 '자두[紫桃]'로 부르지 않고 여전히 '오얏' 또는 이 단어와 관련된 여러 형태로 쓰고 있다. 예컨대, 지금 정선 방언과 같이 일부 방언에서 '오얏'의 방언인 '꽤'는 재래종으로, '자두'는 개량종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44] 전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개 재래종 자두를 '자두'라고 하지 않고 '옹애'라고 한다.[45] 이렇게 봤을 때 당시에 '紫桃'는 개

43) 한국어로 번역하면 "복숭아류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모양이 복숭아와 비슷하기 때문에 櫻桃라고 하였다. 어찌 이를 의심할 수 있는가? '沐猴梨', '胡桃'의 경우도 모두 그 외양이 배나 복숭아와 같을 따름이다."이다.

44) 고경재, 「정선 지역어의 어휘」, 『정선 지역어』, 월인, 2016, 103면.

량종을 지칭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완진[46]에서는 환경에 따라 같은 과실 명칭이 다른 내용 또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예시하였고, 그 과실 내용 또는 의미가 달라진 원인을 접목(接木)으로 설명한 바 있다. 여채려[47]는 김완진[48]의 논의를 참고하여 『박통사』에서 나타난 자두인 ‘玉黃子’가 ‘살구(유황ᄉᆞᆯ고)’로, 멋[奈]인 ‘虎刺賓’이 ‘오얏(유황외엿)’으로 언해된 것도 접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그 언해 원인을 논의하였다. 紫桃를 개량종으로 봤을 때, 이러한 논의들에 의해 紫桃가 ‘桃’로 명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두 품종은 복숭아나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는 농서 문헌에 나온 관련 기록,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자.

(R) 桃樹接李枝, 則紅而甘. 柿樹接桃枝, 則成金桃. 李樹接桃枝, 則生桃李. (…) 梅樹接桃, 則脆. 桃樹接杏, 則大.[49]
(복숭아나무에 자두나무 가지를 붙이면 [생긴 열매가] 빛깔이 붉고 맛이 달다. 감나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황금색 복숭아[金桃]가 된다.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복숭아자두[桃李]가 된다. (…) 매실나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무른 품종이 되고 복숭아나무에 살구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큰 품종이 된다.)

(S) 가. 桃. 柿接桃, 則爲金桃. 李接桃, 則爲李奈. 梅接桃, 則爲脆奈. ᄉᆞ接杏, 則甫大. 接李, 甘紅.
(감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황금색 복숭아[金桃]가 되고 자두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자두복숭아[李桃]가 되고 매실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무른 복숭아[脆桃]가 된다. 복숭아나무 가지를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생긴 열매가] 가장 크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생긴 열매가] 맛이 달고 빛깔이 붉다.)

---

45) 전라도 지역에서 재래종 자두의 명칭에 대한 사용 양상을 제공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6) 김완진, 「사과와 능금, 그리고 ‘멎’」, 『국어학』 제40집, 국어학회, 2002, 3-19면.
47) 여채려, 「朴通事에 나타난 ‘玉黃子 유황살고’와 ‘虎刺賓 유황외엿’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제46권 1호(통권 17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217-246면.
48) 김완진, 앞의 글, 2002.
49) 郭橐駝(唐), 『種樹書』 卷之下 果.

나. 李. 桃枝接李則生子甘紅.[50]
(복숭아나무 가지를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생긴 열매가 맛이 달고 빛깔이 붉다.)

(R)은 중국 고농서(古農書) 문헌이다. (R)과 (S)에서 기록한 내용이 같다는 점에서 (S)는 (R)에 의하여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S)를 보면, (S가)는 복숭아나무[桃]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柿接桃', '李接桃', '梅接桃' 등과 같은 기술은 '○○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X接Y'라고 했을 때, 'X'는 접목할 나무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Y'는 모본(母本)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형식에 따르면 뒤의 '〻接杏'[51], '接李'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살구나무 또는 자두나무에 접붙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S가)의 '(㚔)接李甘紅'이라는 기술이 (S나)의 자두 품종을 개량하는 기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접목하여 개량한 품종의 명칭인 '金桃', '李㚔', '脆㚔'를 봤을 때, 접목법으로 인해 생긴 열매의 특징은 접목한 나무의 열매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S나)를 (R)의 앞 밑줄 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접목 대상의 순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생긴 열매의 특징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S가)의 밑줄 친 내용과 (R)의 뒷부분 밑줄 친 내용을 확인하였듯이, 품종을 명명하는 데 차이가 있다. 자두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李㚔'로, 복숭아나무 가지를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桃李'로 명명되었다.

접목으로 생긴 열매의 특징은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증명되었다. 전지혜・정경호[52]에서는 자두와 살구의 종간교잡을 통해 플럼코트라는 과실이 육성되었는데, 이 과실은 살구와 같은 과피(果皮)를 가지면서 자두의 맛을 동시에 가지는 새로운 과종(果種)이라고 하였다. '플럼코트(plumcot)'라는 명칭은 바로 'plum(자두) + apricot(살구)'에서 온 혼성어이다. 종자의 교잡 순서에

50) 『增補山林經濟』(1766) 권3 種樹.
51) 여기서 중복 기호 '〻'가 쓰였는데, 이는 앞의 '㚔'와 같은 내용을 말한다.
52) 전지혜・정경호, 「자두, 살구 및 이들 종간잡종간의 종간교잡 친화성」, 『원예과학기술지』 제25권 3호, 한국원예학회, 2007, 217-222면.

따라 '플럼코트(plumcot)'는 'aprium'라고도 한다. 'aprium'은 'apricot(살구) + plum(자두)'에서 온 혼성어이며 마찬가지로 살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두의 한 품종이다.53)

접목이든 종간교잡이든 이에 의하여 개량해서 생긴 품종의 특징은 접목하거나 교잡한 나무의 열매 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그 열매의 명칭도 접목하거나 교잡한 나무에 의해 명명한 것이 확인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두의 하위 품종인 紫李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자두는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를 접목하여 개량한, 복숭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된 품종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紫桃'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라고 해석된다.54) (M)과 (S)에서 제시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紫桃'는 '[+크다], [+붉은색/자주색], [+달콤하다], [+복숭아]' 등의 의미 성분을 가지는 명칭이라 하겠다.

---

53) Pluot,「Apriums are complex plum-apricot hybrids that show primarily apricot traits and flavor.[1] Apriums resemble apricots on the outsid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luot(2020.05.10. 검색).

54) (N)의 '紫桃'는 피와 같은 '붉은색 자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어로 왜 '紫桃'만 명명하고 '紅桃'로 명명하지 않았을까? '紅桃'는 중국어에서 '붉은 복숭아'의 의미로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아래 ①, ②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찍부터 열매가 아닌 꽃을 뜻하며 그 의미는 현대한국어까지 쓰이고 있다.『한불ᄌᆞ뎐』에서는 '紅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한자 '花'를 더해 주어 '홍도화 紅桃花'라는 표제어만 수록하였다. 아마도 '紅桃'의 이러한 용법 때문에 이 단어를 자두 개량품의 이름으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가. 遣代言柳沂, 賜宮醞于校書館紅桃宴. 藝文, 成均, 校書三館, 各以所賞之物名其宴. 藝文曰薔薇, 成均曰碧松, 校書曰紅桃. 三年一次輪辦會飮.(대언 유기를 보내 궁온을 교서관의 홍도연에 내려 주었다. 예문・성균・교서 3관이 각각 상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연'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이라고 하여, 3년에 한 차례씩 돌려가며 마련하여 회음하였다.)『태종실록』3권 태종 2년(1402) 2월 28일 2번째 기사.

나. 其時龔・吳天使出來, 中廟與之同遊後苑. 天使手折紅桃・薔薇兩枝, 插于御冠, 曰: "殿下兩邊黃紅交映."(그때 공용경(龔用卿)과 오희맹(吳希孟)이 천사로 나왔는데, 중묘께서 그들과 함께 후원에서 노닐었다. 그런데 천사가 손으로 홍도와 장미 두 가지를 꺾어 어관에다 꽂으면서 '전하의 양쪽에 누른 빛과 분홍 빛이 어른거린다.'고 하였다.)『광해군일기』(정초본) 57권 광해 4년(1612) 9월 3일 20번째 기사.

② 홍도(紅桃)「1」홍도나무의 꽃. =홍도화.「2」『식물』복사나무의 하나. 겹꽃잎이 짙은 붉은색이며 열매가 없다.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홍도나무.『표준국어대사전』.

4. '紫桃'가 상위어로 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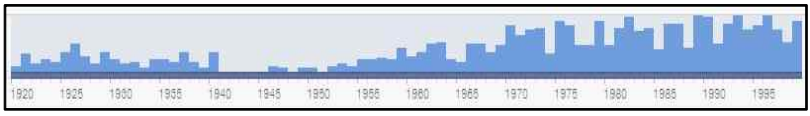
표준어 규정으로 '자두[紫桃]'는 정식적으로 '오얏'을 대신하여 상위어의 위치가 되었으나, 이 단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오얏'과 그의 다양한 방언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강원도 지역에는 '고야, 고얘, 꽤, 농누, 농유, 오얃' 등이, 경상북도에는 '고약, 애기, 애추, 오약, 오얏추, 왜기, 췌리' 등이 사용되고 있다. 남부지방의 노인들은 '노란 자두'를 '오얏'이라고 하고, '자주색 자두'를 '자두'라고 하여 구분한다. 북한의 경우, 표준어는 '추리'이고, '기우리, 시우리, 왜지, 외지' 등과 같은 방언형들은 평안북도에서 쓰고 있다. 또 북한을 위시해서 중국의 연길지방에서는 '오얏'만 알고 '자두'를 모른다.[55]

'紫桃'를 '오얏'의 하위 품종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해 한 가지 궁금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얏'에 다른 하위 품종의 명칭도 있는데, 현재 중부방언에서 왜 하필 '자두[紫桃]'로 자두 종류를 통칭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코퍼스에서 '자두'의 사용 양상을 검토해보자.[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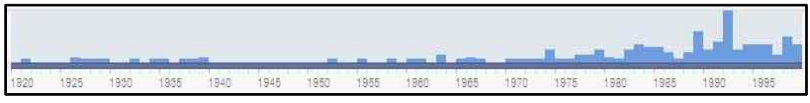
---

55)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자두'의 방언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6)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자두'와 동음이의어가 된 다른 단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두'의 용례수가 여전히 '오얏'보다 많이 나타난다.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에는 '오얏'은 39건, '자두'와 그의 동음이의어를 포함한 결과는 160건이 있다.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한 '자두'와 '오얏'의 빈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자두'



〈그림 2〉 '오얏'

(T) 가. "것 봐, 워낙 공을 들여 심었기 때문에 자두가 열렸잖니?"
"성칠아, 자두가 올해는 열지 않을 거야."
"여름내 아이들은 살구랑 자두랑 가지고 다니면서 주전부리(군것질)를 했습니다."[57]
나. 지난번 장에 자두를 한 광주리나 내었는데 단돈 만원밖에 안 주더라구유.[58]

(U) 가. 조소사는 오얏 한 개를 집어들면서 말하였다.[59]
나. 이곳에서 나는 오얏은 발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60]

(V) 가. 자두를 먹고 가끔 그 즙을 내어 피부를 마사지 해주면 좋아진다.[61]
나. 슬라이스 햄 또는 소시지 2장, 호두 4알, 자두 3개, 크림 치즈 2큰술, 버터 2큰술.[62]
다. 봉지 속에 든 자두는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더욱 붉게 보였다.[63]
라. 복숭아 자두 등 각종 여름 과일들이 노랗고 파랗고 빨간 볼이 터져라 서로 맞대고 있다.[64]
마. 망고나 자두도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에 자주 쓰인다.[65]

(T), (U)와 같은 현대 문학 작품에는 '자두'뿐만 아니라 '오얏'도 보인다. '오얏'을 쓰는 방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와 같은 신문이나 잡지에는 주로 '자두'로 나타난다. 잡지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매체는 새로운 정보, 변화한 언어생활 등을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사람들이 '오얏'과 '자두'를 사용하는 변화가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을까?

뉴스 라이브러리(News Library)는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京鄕新聞』, 『東亞日報』, 『每日經濟』, 『한겨레』 등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다. 1950년대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자두'의 사용 빈도가 '오얏'보다 현저히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7) 권정생 외,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창작과비평사, 1977.
58) 우애령, 『당진 김씨』, 창작과비평사, 2001.
59) 김주영, 『객주5』, 창작과비평사, 1982.
60) 송기호, 『발해를 찾아서』, 솔, 1993.
61) 『우리교육 중등용』 1월호, 우리교육 편집부, 1995.
62) 『라벨르』 9월호, 중앙일보사, 1998.
63) 『좋은생각』 12월호, 좋은생각, 2000.
64) 「한국의 토종·토속 (18) 비파」, 『한겨레신문』, 2000.7.13.
65) 오정미, 「〈오정미의 퓨전키친〉 구운 새우와 복숭아샐러드가 만났을 때」, 『조선일보』, 2000.8.7.

'紫桃'와 그의 한글 표기는 서양 문물들이 대량으로 수입되었던 19세기 말에 많이 쓰게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부방언에서 '오얏'을 '자두'로 대체한 것은 서양 자두의 수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20세기 전반에 한국의 자두는 유럽종・미국종・일본종 등 품종으로 개량된 것이 많이 있었다.[66] 민경탁[67]에서는 『세계 대백과사전』(1988)에 의하여 현재 한국에서 가꾸고 있는 자두는 대부분 유럽종 자두로서 1920년대 이후 재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과 유럽 간의 자두 무역과 관련된 기록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1948년에 미국 자두의 수입 상황과 관련된 신문 자료를 보면 대체로 '紫桃'가 상위어로 된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美國紫桃가 朝鮮에 온다

[샌프라시스코 十六日發UP朝通] 美陸軍의 傭船 '토마스・S・한트'號는 七千六百噸의 紫桃와 二千四百噸의 乾豆를 실코 十五日當地出港 獨逸로 向하는데 이는 一九三三年以來 美國商船으로 처음 獨逸을 訪問하는 것이다 그리고 美陸軍은 追後로 朝鮮과 日本에 一萬七千噸의 紫桃를 輸送할 것이라고 말하엿다[68]

(Ⓦ)의 신문 기사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서 자두를 많이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자두를 표현하는 단어는 '오얏'이 아닌 '紫桃'인 것이다. 새로운 사물이 들어오게 될 때, 이에 대당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유어에서 적당한 단어를 만들어 쓰거나 외래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영어의 'plum'을 차용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자두를 의미하는 고유어인 '오얏'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紫桃'만을 선택하였다. 영어 단어 'plum'이 가리키는 자두 품종은 "연하고 동그란 과일인데, 껍질이 빨간색 또는 보라색을 띠며 과육이 달콤

66) 『東亞日報』 1976년 7월23일의 4면 '사회 칼럼/논단'에 실려 있었던 기사였다.
67) 민경탁, 「오얏론(論)」,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2000, 171-176면.
68) 『平和日報』 第八號, 1948.2.7., 2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京鄕新聞』 2월 18일 2면 '사회'에도 실려 있었다. 「美國紫桃를 朝鮮에 보낸다고」, 『京鄕新聞』, 1948.2.18. "【샌프라시스코 十六日發UP朝鮮】 미국 육군의 용선(傭船) '토마스・에스・한트'호는 七천六백 '톤'의 자도(紫桃)와 二천四백 '톤'의 건두(乾豆)를 실고 十四일 독일을 향하여 떠났는데 추후로 조선과 일본에도 一만七천 '톤'의 자도를 수송할 것이라고 육군에서는 말하였다 한다"

하고 씨가 크다."[69] 곧 '자주색 자두'를 말한다. 특징상 plum은 한국의 紫桃와 유사하다. 그리고 'plum' 그 자체는 '자주색(having a dark reddish-purple colour)'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plum'은 '紫桃'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양 자두를 '紫桃'로 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두를 많이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동시에 자두를 재배하고 있었다. (L)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원래 한반도에서 자라는 자두 종류는 주로 노란색 자두와 맛이 달콤한 자주색 자두, 그리고 맛이 시고 먹기 힘든 야생 자두이었다. 서양 자두의 수입, 그리고 개량종인 자두의 재배량 증가에 따라 원래 있었던 자두 종류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것이다. 곧, 당시에 재래종 중의 맛이 박한 야생 자두는 도태되기 쉽고 아울러 서양 자두 품종의 재배로 노란색 자두는 줄어든다. 결국, 여러 자두 종류를 통칭하였던 '오얏'은 자주색 자두만 가리키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자두 종류가 사라지고 자주색 자두만 남은 것은 통칭이었던 '오얏'이 사라진 이유 중의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자두를 '피자두'라고 하고,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홍자두'라고 하는데, '피'와 '홍'은 붉은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명명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紫桃'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두의 통칭이었던 '오얏'을 상위어에서 밀어내어 자두 종류를 통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주색 자두'를 지칭하는 '紫桃'는 원래 있었던 자두 품종을 모본으로 복숭아나무와 접목해서 개량한 하위 품종이었다. 이 자두 품종은 20세기 초에 서양 자두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그리고 서양 자두에 의해 개량된 자두가 나타나기 전에 국내에 있던 재래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자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특히 이에 의해 개량된 자두 품종이 나타나면서 이들은 紫桃와의 특징이 유사하므로 '紫桃'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

69) 「Oxford Learner's Dictionary」,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2020.05.10. 검색). "plum : a soft round fruit with smooth red or purple skin, that is sweet inside with a large flat seed.";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2020.05.10. 검색). "plum : a small, round fruit with a thin, smooth, red, purple, or yellow skin, sweet, soft flesh, and a single large, hard seed."

다.[70] 즉 '紫桃'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고 그 의미도 일반화가 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하여 한자어 '紫桃'로부터 지금의 '자두'에 이르기까지 시기 순서대로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자두가 '자두[紫桃]'로 명명된 이유를 추정해 보았고, 표준어에서 '자두[紫桃]'가 어떤 계기로 상위어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두'는 한자어 '紫桃'의 축자적인 뜻인 '자주색 복숭아'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가 늦어도 15세기부터 자두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紫桃'는 자두의 의미로 쓰일 때, 처음에는 오직 자두의 하위 품종인 紫李의 속칭이었다.

〈표〉 '자두[紫桃]'의 의미 변천

시기	표기	지시 내용 또는 위상	문헌 자료
고려후기	紫桃	복숭아	「海棠」
중세전기	紫桃	자두, 하위 품종	『中宗實錄』
17세기	紫桃/黃紫桃		『惺所覆瓿藁』, 『扶桑錄』, 『東槎錄』
18세기	黃紫桃		『增補山林經濟』
18세기말	紫桃	자두, 속칭, 하위 품종	『海東農書』, 『林園十六志』
19세기초	紫桃	자두, 하위 품종	『物名攷』
19세기중반	紫桃	자두, 통칭	『松南雜識』
19세기말	자도/ᄌᆞ도/紫桃	자두, 하위 품종	『한불ᄌᆞ뎐』, 『국한회어』, 『한영ᄌᆞ뎐』
20세기초중	자도/ᄌᆞ도/紫桃/자두	자두, 통칭	
20세기후반	자두	자두, 통칭	

70) 물론 현재 새로운 품종이 육성됨에 따라 자두의 품종이 많이 달라졌으며 외국 명칭도 많아졌다. 인기 자두로는 크기가 크고 맛이 좋은 가을 자두 '추희자두', 신맛이 적고 붉그스름한색을 띈 과육이 단단한 '도담자두' 등을 들 수 있다. 외국 명칭으로는 '썸머뷰트', '프레지던트', '레드아이', '스롭셔댐슨' 등이 있다.

둘째, ‘紫桃’가 중국어에서 왔다면 이 단어는 늦어도 북송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 지시물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紫李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자두는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를 접목하여 개량한, 복숭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된 품종이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국어에 들어온 어휘인 ‘紫桃’가 복숭아나 그 부류의 명칭이었다가 복숭아나무에 의해 개량된 자두 품종을 속칭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셋째, 표준어에서 ‘자두[紫桃]’가 상위어로 된 계기는 19세기 말에 한국 자두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는 서양 자두의 수입, 개량종인 자두의 재배량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紫桃’는 개량종을 가리킴으로서 서양 자두의 수입에 따라 의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 단어는 원래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를 접목하여서 개량된 하위 품종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가, 이와 특징이 유사한 서양 자두 및 서양 자두에 의해 개량된 자두 품종까지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 참고문헌

강춘기, 「우리나라 과실류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5권 3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0, 301-312면.
고경재, 「정선 지역어의 어휘」, 『정선 지역어』, 월인, 2016, 97-125면.
구자옥, 「자두나무 [李: 오얏]」, 『고농서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온고이지신 제10권 구황·벽온·구활편 목본류』, 농촌진흥청, 2013, 144-151면.
김무림, 『한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교양, 2015.
김완진, 「고려가요 식물명의 두세 문제」,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 출판부, 2000, 317-328면.
_____, 「사과와 능금, 그리고 '멋'」, 『국어학』 제40집, 국어학회, 2002, 3-19면.
민경탁, 「오얏론(論)」, 『새국어생활』 제10권 2호, 국립국어원, 2000, 171-176면.
백문식,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2015.
서정범, 『국어어원 사전』, 동방미디어, 2002.
여채려, 「3음절 한자어 색채어의 배열순서와 단어 구조」, 『한국어학』 제72호, 한국어학회, 2016, 121-145면.
_____, 「朴通事에 나타난 '玉黃子 유황살고'와 '虎刺賓 유황외엿'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제46권 1호(통권 17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217-246면.
이광호, 「전래 농서의 果樹類 분류와 相異 명칭」, 『우리말글』 제51집, 우리말글학회, 2011, 95-116면.
이익섭, 『우리말 산책』, 신구문화사, 2010.
장권열, 「우리나라의 고농서—Ⅶ. 과수류의 종류, 명칭과 품종명(1400-1886)」, 『한국육종학회지』 제21권 3호, 한국육종학회, 1989, 234-240면.
전지혜·정경호, 「자두, 살구 및 이들 종간잡종간의 종간교잡 친화성」, 『원예과학기술지』 제25권 3호, 한국원예학회, 2007, 217-222면.
조항범, 『국어 어원론』(개정판), 충북대 출판부, 2014.
황선엽, 「'명아주'(藜)의 어휘사」, 『국어학』 제55집, 국어학회, 2009, 213-238면.

李紅梅·崔松明·平正建, 「生態紫桃樹病害防治技術」, 『中國農業信息』 第19期, 中國農業科學院農業資源與農業區劃研究所, 2016, 98面.
趙 琳, 「種植富硒紫桃身價高」, 『農家致富』 第10期, 江苏省农村经济杂志社, 2019, 21面.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언어정보나눔터」, 국립국어원, https://ithub.korean.go.kr/.
「조선말 큰사전」, 한글학회, https://www.hangeul.or.kr/.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지역어 종합 정보」, 국립국어원, http://dialect.korean.go.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db.itkc.or.kr/.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riksdb.korea.ac.kr/.

「문연각 사고전서(1773) 전자판」,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

【Abstract】

Lexical History of the Sino-Korean word 'jatu'

Yu, Cai-Li*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Sino-Korean word 'jatu [紫桃]', the reason for the plum is named as 'jatu [紫桃]', and the reason for all kinds of plums are collectively called 'jatu [紫桃]' in standard language. As a result, from the beginning, the Sino-Korean word 'jatu [紫桃]' meant 'purple or red peach', which is the Chinese usage, and meant 'plum' in the 15th century at the latest. 'Jatu [紫桃]' pointed at a generic term for the subtypes of plums not a generic name for plums. This plum variety was improved by applying peach trees to plum trees, and it had characteristics similar to peaches. For this reason, this plum was called 'jatu [紫桃]'.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atu [紫桃]' became a generic name for the plum species. The reason was seen as related to the importation of Western plums and the increase in the cultivation of plums.

Keywords: jatu, jato, plum, peach, prune, oyad, lexical history.

접수일: 2020.03.3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

* Ph. 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